

시크릿 마더, 막장 아닌 스릴러 지상파 주말극에도 통할까



가족애를 강조하는 통속극이 아닌 스릴러 드라마가 무려 지상파 주

살인·추리극 형태 도입부 등 시선 끌기 성공 신선함 넘어 작품 자체의 도전 과제로도 평가

말극 시간대에 들어왔다. 배우 송윤아 김소연 등을 앞세운 워맨스 스릴러 드라마 '시크릿 마더'가 도전의 막을 올렸다.

SBS 새 주말드라마 '시크릿 마더' (극본 황예진·연출 박용순)가 12일 밤 첫 방송됐다. '시크릿 마더'는 아들 교육에 올인한 강남 열혈 엄마 김윤진의 집에 의문의 입시 보모 리사 김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드라마다. 드라마는 첫 방송부터 살인 사건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높였다. 피해자는 바로 입시 보모 리사 김(김소연)이었다.

이어 그를 고용한 김윤진(송윤아)을 비롯해 같은 타운 하우스 주민 강혜경(서영희), 명화숙(김재화), 송지애(오연아)가 용의 선상에 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강혜경은 외도한 남편을 멀리하던 중 딸의 수역 강사에게 설레기 시작했다. 명화숙은 위장 이혼까지 하며 대치동에 입성 '돼지' 엄마로 나섰

다. 송지애는 소위 '텐프로'라 불리는 화려계 출신이었으며 리사 김과도 과거 인연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윤진은 리사 김과 가장 악연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과거 김윤진이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었고, 리사 김의 언니 사망과 얽혀 있었기 때문. 리사 김 역시 본명 김은영으로 아직 과거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의문스러움과 호기심을 잔뜩 자아냈다. 극은 이처럼 첫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인물들의 비밀을 강조하며 긴장감을 유지했다.

이 같은 구성은 '지상파 주말드라마'라는 편성 시간대에 한해 신선함을 남겼다. 그동안 케이블TV tvN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신선한 소재와 완성도 높은 스릴러 장르물로 호평을 얻었던 가운데, 지상파에서는 요일 혹은 시간대 별로 편성 장르가 확연히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월화 드라마와 수목드라마 같은 평일 밤 프라임 시간대에서는 로맨스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주력 작품을 선보였

고 주말드라마로는 중·장년 시청자들을 고려한 가족애를 강조한 통속극을 주로 편성했던 것. 일례로 현재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나 MBC 토요드라마 '네발남편 오작두'나 '이별이 떠났다' 모두 남녀 간의 로맨스를 가족애로 확장시키는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tvN과 JTBC의 스릴러는 채널 특성상 중·장년층 시청자보다는 2040 시청자 등 비교적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샀던 터. 중년 주부 시청자를 겨냥한 '시크릿 마더'는 편성표 상의 타깃 시청자들과 장르적 차이 시청자들이 전혀 다른 설정이다. '시크릿 마더'의 스릴러라는 장르는 신선함을 넘어 작품 자체의 도전 과제로도 평가받는 이유다.

이 가운데 쟁쟁한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력은 작품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고 있다. 송윤아 김소연 서영희 김재화 오연아 등 첫 방송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한 배우들이 전작에서 기록 없이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기 때문. 첫 방송에서도 이들은 따로 또 같이 에너지를 발산하며 작품의 긴장감과 매력을 심분 끌어올렸다.

최근 방송가에서 '워맨스'를 강조

한 드라마들이 대세라는 점도 '시크릿 마더'에 대한 기대감을 부채질했다. 지난해 배우 김희선 김민아를 내세운 JTBC 드라마 '뽕이 있는 그녀'나, 최근 김남주 전혜진 진기주 등의 활약 속에 성황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미스티',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TV OCN 주말드라마 '미스트리스'까지, 이들 작품은 하나같이 2030 혹은 3040 여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력과 매력을 앞세워 호평과 시청률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공교롭게도 '시크릿 마더' 역시 3040 여배우들을 앞세운 스릴러라는 동일한 설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유사한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과적으로 첫 방송에서 '시크릿 마더'는 시선 끌기엔 성공했다. 살인 사건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극 형태의 도입부가 시선을 끌었고, 송윤아 김소연 등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긴장감과 흥미를 심분 끌어올렸다. 이미 시청자들 사이에서 범인을 추측하는 담론이 형성된 상황. '시크릿 마더'가 편성과 채널의 특성을 깨어남어 작품 자체의 매력으로 끝까지 시청자를 열광케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을 노래하다



를 원망한다. 하지만 암마를 괴롭힌 과거의 흔적과 상처를 알게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기복 감독이 실제로 보고 들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9년에 발생했던 이철규 변호사 사건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결합,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과 상흔을 그려낸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풀어낸다. 많은 이야기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이음새는 다소 매끄럽지 않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기억해야 하나고 묻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빗쟁이처럼 따라다니는 그날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고, 또한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고, 투박하고 직선적이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대표곡이자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이름 없이 떠난 이들과 그날의 상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는 명희를 그려낸 김부선의 연기가 영화에 생생함을 더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나선 철수를 연기한 전수현, 젊은 명희 역의 김재희도 제 몫을 다한다. 김꽃비 이한위 김효명 등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울림을 남긴다.

16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5분.

를 원망한다. 하지만 암마를 괴롭힌 과거의 흔적과 상처를 알게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기복 감독이 실제로 보고 들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9년에 발생했던 이철규 변호사 사건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결합,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과 상흔을 그려낸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풀어낸다. 많은 이야기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이음새는 다소 매끄럽지 않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기억해야 하나고 묻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빗쟁이처럼 따라다니는 그날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고, 또한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고, 투박하고 직선적이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대표곡이자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이름 없이 떠난 이들과 그날의 상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는 명희를 그려낸 김부선의 연기가 영화에 생생함을 더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나선 철수를 연기한 전수현, 젊은 명희 역의 김재희도 제 몫을 다한다. 김꽃비 이한위 김효명 등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울림을 남긴다.

16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5분.

'아이돌룸', 역시 아이돌계 대부 정형돈X데프콘



아이돌 전문 MC 정형돈 데프콘이 '동화X콘'로 돌아왔다. 종합편성채널 JTBC 새 예능프로그램 '아이돌룸'이 12일 첫 방송됐

다. '아이돌룸'은 정형돈과 데프콘이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돌 전문 예능프로그램으로, 그를 워너원(강다니엘 박지훈)이 대주 김재환 오성우 박우진(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다.

정형돈과 데프콘은 앞서 케이블TV MBC에브리원에서 주간아이돌을 장기간 진행해온 바, 때문에 '아이돌룸'이 주간아이돌의 이미지를 떨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아이돌룸'의 첫 방송은 '357댄스' '나노댄스' '팩트체크'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차별화를 꾀

하며 이러한 우려를 잡식시켰다. 각 코너들은 아이돌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 기본틀을 따르면서도 약간의 변주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했다.

MC들이 숫자를 외치면 그에 맞게 멤버들이 투입돼 안무를 완성하는 '357댄스' 코너에서는 워너원 멤버들이 우왕좌왕하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완벽히 칼군무를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안무 중 킬링 파트 구간을 1인 댄스로 선보이는 '나노댄스' 코너에서는 워너원의 '부케' 중 킬링 파트를 11인 11색의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아이돌룸'은 '357댄스' '나노댄스'와 같은 코너들은 아이돌이 지닌 강력한 콘텐츠 중 하나인

군무를 활용해 볼거리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코너들이 첫 회부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정형돈과 데프콘의 힘이었다. 그간 아이돌 프로그램이 진행해오며 쌓아온 아이돌과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팬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밑바탕으로 여색함 없이 첫 회부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데 성공했다. 또 수많은 아이돌을 만나오며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특유의 친근감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매력을 심분 발휘하게 만들었다.

'뉴스룸'처럼 아이돌 방송에서 신뢰도 1위를 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도 첫 방송 내내 '아이돌룸' 아이돌에 대한 두터운 지식과 애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그 바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라진 '뜻밖의Q', 개선 의지 훌륭 vs '빅재미'는 아직

'뜻밖의 Q'가 "2회부터 달라진 다"고 말했던 것처럼, 세트부터 포맷까지 바뀐 모습을 보였다. 계속 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뜻밖의 Q'가 시청자 중심의 '팬층은 주말에 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뜻밖의 Q'에서는 은지원-지상렬, 행주-정준영, 안영미-에이핑크 윤보미, 단단-세븐틴 승관이 Q플레이어로 합류해 2인 1팀을 이뤄 퀴즈를 푸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난 첫 회와 달리, '뜻밖

의 Q'는 세트부터 풀이방식까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수근과 전현무 MC는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정말 확 바뀌었다. 최현호 PD와 전화하는데 망치질 소리가 엄청 났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제작진의 노력을 전했다. 싹 바뀐 스튜디오를 보고 놀라는 패널들을 보며 MC들은 "3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변화가 아직 끝이 아님을 드러냈다.

기본적인 퀴즈 포맷은 똑같았지만 많은 패널들이 각자 문제를 푸는 형식이 아닌, 2인1조로 팀전을

꾸리는 형식으로 바꾼 '뜻밖의 Q'. 토크쇼처럼 둘러앉은 세트 덕분에 노래나 근황에 대한 짧은 토크도 추가돼 1회의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첫 회에는 '퀴즈'에 집중돼 토크가 등장할 타이밍이 미치지 않았고, 이는 수많은 패널이 그저 퀴즈에만 달려드는 조급한 느낌을 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트 변화로 인해 달라진 2회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더 차분하고 여유롭게 패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많다. 음악퀴즈는 포맷이 일단 몰드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퀴즈 형식이 필요하다.

이미 1회에서 등장한 영상 퀴즈나 이모티콘 퀴즈는 한 두 문제를 풀 때에는 신선한 맛 보였으나, 그 이상을 넘어가니 루즈함이 밀려왔다. 일정한 퀴즈 형식의 생명력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게 2회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

게다가 아직까지는 '뜻밖의 Q'가 밀고 나가고자 했던 '시청자vs 패널'의 느낌은 살지 않는다. 현재 시청자가 출제하는 문제는 이모티콘 퀴즈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음력 3월 29일)



▶**쥐** 지금은 내 행위를 살펴보고 뜻을 성취해야 할 때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 자기 영역을 관찰하듯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1, 8, 12월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내다보라. 더는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는 일에 더욱 정진할 필요가 있다.



▶**곰** 좋은 소리도 여러 번이면 잔소리가 돼 상대가 듣기 싫어한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확신하게 만들라. 7, 8, 9월생 현재 마음과 몸이 지친 상태로 속마음까지 상대 있을지라도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니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양이** 씨앗을 뿌린 뒤,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 또한 호황으로 발돋움할 시기가 왔다. 가정에도 경사가 있지만,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처신에 주의하라. 2, 7, 11월생 남의 말 열 마디보다 가족의 말 한 마디가 보약이다. 가정에 신경 쓰라.



▶**토끼** 신의를 지키며 행동할 때 운이 함께하니 하는 일도 순조롭다. 2, 7, 9월생 동업은 각별히 상부상조하라. 상대가 딴 곳에 마음 둔다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7, 8, 9월생 생계 상대에게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길을 찾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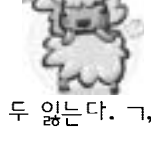
▶**원숭이** 자만하다 물에 빠지는 격이다. 모든 것을 겸손히 생각할 때 자리가 넓고,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 현실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일할 때 대성한다. 2, 9, 11월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북서쪽은 길하다.



▶**돼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좋아도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필요 이상 자축이 많으니 낭비를 삼가고, 주위 조언을 들으라. 진행되는 일이 희소식을 안겨준다. 7, 8, 11월생 가까운 이가 왜 떠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내를 갖고 임하라.



▶**말**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말처럼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전념하라. 도움 줄 자가 나타난다. 3, 4, 12월생 옛것에 끌리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하라. 용기백배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개** 차분히 처리해도 된다. 무슨 일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 처신하라. 때가 되면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6, 8, 9월생 애정을 쉽게 생각하다 한꺼번에 모두 잃는다. 7, 8, 9월생 동쪽이 길하다. 신병이 우려되니 건강에 유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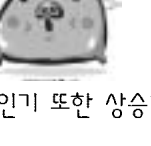
▶**원숭이**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지키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명예보다 사업에 신경 써야 한다. 멀리 여행하거나 산행하는 것은 오늘 하루 가지 않음이 좋다. 2, 5, 11월생 음식이 많은 곳을 피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돼지**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행복 또한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7, 8, 9월생 성미 운다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라. 애정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금전은 도움 주는 손이 많다. 1, 4, 6월생 휴식이 필요하다.



▶**고양이** 희망을 품고 착실히 노력하니 마음에 안정과 여유가 찾아온다. 진실한 마음이 주위에 비치니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준다. 서비스, 가이드, 요식업 종사자는 길하다. 문서 관계로 이득도 온다.



▶**개** 무슨 일든 한 번에 성취하려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실행하라. 8, 9월생 생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거든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도 번창하고 인기 또한 상승한다. 북쪽과 서쪽이 길하다.